

봄철 성수기 전자재價 - 예년만큼 들쭉이지 않아

- 철근 · 시멘트 공급 과잉 등으로,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급상승 -

전 병 수 | 건설경제 기술자재팀장

건설공사가 본격적인 봄철 성수기에 진입했다. 건설사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공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런저런 이유로 겨울 동안 미루어 왔던 사업들도 하나 둘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시멘트, 철근,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PHC) 파일, 타워크레인 등 건설 기자재의 수요도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PHC 파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예상 외로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다.

건설 현장이 활기를 찾고 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때는 항상 전자재 가격이 들쭉인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감소할 때도 가격에는 변화가 온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시멘트, 철근 등 자재 생산업체들이 잇따라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레미콘, 파일, 흙관, 블록 등 시멘트 2차 제품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거래 가격을 놓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다. 심한 경우 생산업체들은 공급 중단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만큼 시끄럽지는 않다.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건설사와 자재생산업체 모두 상대의 입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금이 새 정부 초기

인 만큼 그간의 관행들이 자칫 담합으로 비춰질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단은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탐색전이 끝나는 4월부터는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가격을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든, 내리든, 아니면 동결하든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근의 경우 건설사 관계자들과 제강사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론을 얻지 못했다.

철근, 건설사·제강사 입장 평행선

철근은 가격을 놓고 건설사와 제강사들이 맞서고 있다. 현대제철, 동

국제강 등 전기로업체들은 꾸준히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3월이 다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가격은커녕 지난 1, 2월 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강사들은 1월 가격을 지난해 12월과 같은 톤당 75만원(고장력, 10mm 기준)으로 동결하고, 2월 가격은 4만 7,000원 상승한 79만7,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1, 2월 가격 모두를 작년 12월보다 1만원 내린 74만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강사들은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고, 건설사들은 철근의 수요가 줄어 공급이 넘치고 있다며 제강사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1, 2월 가격은 3월로 이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강사들은 4만 7,000원 오른 가격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물론 인상을 수용한 현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 역시 물려서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현장별로 별도로 철근을 구매할 수도 있다



봄철 성수기를 맞아 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자재 가격은 들쭉이지 않고 있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철근 재고가 늘어나고, 제강사 출고 가격과 유통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철근의 원재료인 철 스크랩도 재고가 넘치며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제강사들의 철근 재고는 약 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철근시장의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만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가격 역시 출고 가격과 유통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차 유통업체들이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은 톤당 69만원 안팎으로 제강사 출고 가격과는 차이가 난다. 더구나 중국산 철근은 유

통 가격보다 5만원 가량 낮은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강사들이 이런 불리한 여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건설사들을 설득할지 두고 볼 일이다.

시멘트업계, 톤당 8만원 남짓 인상 요구

시멘트 가격 역시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업체들은 연초 2월 출하분부터 가격을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통보 대상은 건설사와 레미콘업체, 시멘트 2차 제품 생산업체 등이다.

시멘트사들은 납품 가격을 지난해 톤당 7만 3,600원(벌크시멘트 기준)에서 8만원~8만 1,600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별 적용일자도 2월 7일에서 15일까지로 설정했다. 시멘트사들은 지난해 가격을 인상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설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와 레미콘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멘트사들의 요구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멘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린 데다 철근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넘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시멘트사들의 인상 논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양측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물밑에서 서로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시멘트 가격이 레미콘, 파일 등의 가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늦어도 4월 중에는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바닷모래 m³당 1.2만원 선

골재는 전국적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가격도 전체적으로

는 안정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겨울 동안 수급 불안이 우려됐던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나 급한 불은 껐다. 수도권도 지난 1월 서해 EEZ에 이어 3월 들어 안산, 태안 등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났다. 따라서 레미콘 등 수요자들이 우려했던 바닷모래 수급 불안은 해소됐다. 가격은 부산·경남 지역 강사 및 세척사의 경우 m³당 1만 8,000~1만 9,000원(도착도 기준), 부순모래 2만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바닷모래의 가격은 도착도 기준으로 m³당 1만 2,000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갈은 수도권의 경우 일부 사업장의 철거로 수급 불안이 우려됐으나 판교, 세곡 지구 등의 원석 발생량이 많아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m³당 1만 4,500~1만 6,0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료 급상승

타워크레인은 공급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12톤 및 14톤급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임대료가 월 700만원이 넘는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더할 경우 월 임대료는 1,400만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한다.

이처럼 타워크레인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0년 3,400대에 달했던 크레인의 수가 현재는 2,700여 대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세종시를 비롯한 위례신도시 등의 현장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미콘, 시멘트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이 밖에 레미콘은 지난해 4월 건설업체와 레미콘업체가 합의한 가격 m³당 5만 9,900원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체가 시멘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한다.

시멘트 가격이 동결될 경우 레미콘 가격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에는 변동이 불가피하다.

PHC 파일 역시 시멘트 가격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와 합의한 가격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CERIK